

“개울 물소리 들었는가? 그리로 들어가라”

동안거 해제법어 <요약>

걸음 닿는 곳 어느곳이든 총림

법전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사입총림해(乍入叢林兮) 걸개입로(乞
簡入路)
언계수성해(偃溪水聲兮) 고금독로(古
今獨露)
겨우 총림에 들어왔음이어! 들어갈
걸음 가르쳐달라고 했네.
어울진 계곡의 물소리여! 고금에 흘
로 드러났도다.



총림에 갓 들어온 경청스님이 현사
스님에게 들어갈 길을 물으니 도리어
“개울의 물소리를 들었는가” 하고 물
습니다.
“들었다”고 하니 “그리로 들어가라”
고 합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음

대로 사방 팔방으로 통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총림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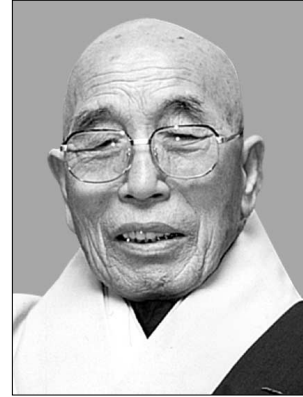
총림은 석달 전에 결제를 하여 오늘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제를 하니
대중들은 산중총림에서 세상총림으로
만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세
계가 모두 총림인 것입니다. 걸음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총림 아닌 곳이 없
습니다. 해제는 세상의 총림에서 다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납자기문해(納子既聞兮) 가거가호(可
車可虜)
종자리입해(從者裏入兮) 하착하오(何
錯何誤)
납자가 이미 들었다 함이어! 수레 소
리 같고 두레박 소리 같도다.
그리로 들어가라 함이어! 무엇이 틀
렸고 무엇이 잘못이라.

증득의 찰나를 놓치지 마세요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行年忽忽急如流(행년홀홀급여류)
西風殘日未言歸(서풍잔일미언귀)
只此一身非我有(지차일신비아유)
休休正身外更何(휴휴정신외경하)
해기는 것이 급한 물줄기와 같도다
서풍 불고 해지니 돌아온다 말할 수
없고
육신 텅 빈 곳에 내 또한 없으니
말하라, 이 몸의 정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선문(禪門)의 어구(語句)는 다만 집착
을 타파하고 종지를 나타내는 것을 귀
중히 여기며 직절(直截)하게 깨달아 들
어가는 것으로 힘을 뿐, 번거로운 문장

시회대중(時會大眾)들이여!
편안히 적묵(寂默)의 경지에서 스스
로 깨닫하여 미묘(微妙)하고도 상냥한
언설(言說)을 접하라.

과 주해로서 의리를 베풀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명수
(名數)에 들어가면 묘본(妙本)이 어그러
지고 언설을 내면 진종(眞宗)이 숨어버
린다.” 하였으니 말을 떠나 홀로 깨친 이
후에야 진종을 접할 수 있고 명수를 떠
나 곧바로 이후에 묘본을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의심이 아직 살아 여여하면 해제(解
制)가 아니니 증득(證得)의 찰나를 놓치
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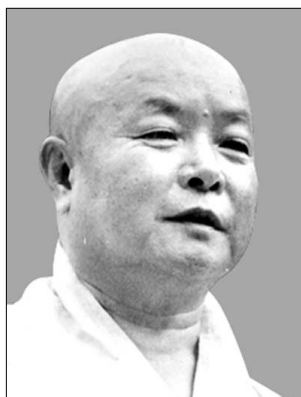
金策(鎭)聲猶未振 憑誰說與此時心(금
책성유미진 병수설여차시심)

황금채찍 찰라 소리 드날리지 못하니
누구에게 지금 심정 말할 수 있을거
나.
壽(갑)!

화로 속 불꽃 위에 함박눈 쌓이네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經年雪花掛山頭(경년설화괘산두)
梅枝花香春來了(매지화향춘래료)
一道清風行碧漢(일도청풍행백한)
靑山淨江隨流水(청산부강수류수)



嘉(嘉)스님은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부
처님 몸이요, 허깨비 같은 공한 몸이 법
신이라 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대중

들은 일러보라. 법신을 무어라 하겠는
가? <拄杖一打>

금강(金剛)이 쇠공둥이를 맞으니 진흙
소의 눈에 피가 나도다. 법신은 허공 같
아 끝이 없어서 물결에 맞추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물 속의 달과 같
으며, 제자리를 여의지 않고 항상 조용하
나 찾으려면 끝끝내 볼 수 없으리라.

일천의 백로가 눈에 내리니 천 송이
눈이요, 노란 피꼬리가 가지에 앉으니
한 조각 황금이라도.

육조 스님은 밖으로 일체 상을 여림
을 무상이라 하고 능히 이 상을 여의면
법체가 청정하기에 무상으로 체를 삼
고, 모든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이 무념이니 이것으로 종(宗)을 삼는다
하였다. 온갖 법이 자성으로부터 나므
로 언제나 생각과 그 마음을 조촐히
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
법신을 보매 자기 마음부처를 보아 스
스로 제도하고 일체경계를 반연(攀緣)
하되 모든 분별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확연히 법신의 경지를 꿰뚫고 나면 한
떨기 광풍이 일어나리라.

해 묵은 성애가 산봉우리를 덮었으니
매화 꽃봉오리에 봄이 와있네
한 가닥 맑은 바람은 푸른 은하수를
지나고
산은 강물따라 흐르네.

금릉(金陵) 지공(誌公)스님은 형상 있
는 몸 가운데 형상 없는 몸이요,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길이라 했고, 영가(永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키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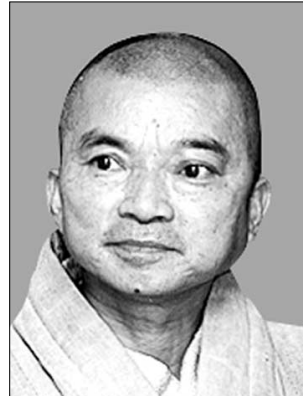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법어전문은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경계 매이지 말고 자기 들여다 보아야

지허스님 (태고총림 칠전선원장)

오늘의 해제라 하니 납자들이여 해제
구를 한번 일러 보십시오.
밥을 먹었으면 배부르다 할 것이고,
벌꿀을 먹으면 달다 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이 양구(良久)하시니 이 병든 납
자가 단소나 한 곡조 부르겠습니다.



사이 허망하게 죽는 것이 아닌지 하면
서 돌덩이나 쇠뭉치같이 앉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중에 홀연히 밖으
로부터 한줄기 온화한 바람이 선방문
창호지에 가만히 부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그러기에 쌓인 눈도 알지 못하고 매
화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 소식을 쌓
인 눈이 알고 매화가 알아차렸다면 밤
중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눈은 녹아 버
릴 것이요, 매화는 피어서 향기가 날 것
입니다.

夜半和風到窓紙(야반화풍도창지)
不知是雪是梅花(부지시설시매화)
한밤중에 온화한 바람이 창문 종이에
이르니
흰눈도 매화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삼중에 선방에서 좌복 하나에 이 몸
을 의지하고 앉아 공부하는데 끝물하다
보면 대장부로 태어나서 한번 작정한
일을 다 이루지 못해 오매불망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
지, 밥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는 것이 수
행자입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모질게
불고, 선방안의 추위는 어깨와 무릎에
스며들어 차디차 감각마저도 없을 때가
이어집니다. 이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수행자들은 공부하는데 열중하면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게 부는 화기
어린 기운을 싣고 오는 바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알면 목인(木人)이 노래하
고 석녀(石女)가 춤을 추며 삼천대천
세계가 대풍요를 누리게 될 줄 알게 됩니
다. 이때야야 무가애하여 대자유인이
됩니다.

제불 조사가 다 이 길을 가서 생사를
해탈하고 견성성불했습니다. 내 어찌
중도에 그만두겠는가 하면서 모든 수행
자들이 정진하고 또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때론 끝없고 가없는 참구만
하다 보면 자신이 이리다가 이루지 못
할일을 왜 해릴 이 고생을 하고, 하는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음을 다잡아 추스려서 참 공부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침광스님
처럼 밤 깊은 산중에 비가 오고 강가의
안개비 개이는 줄도 알게 됩니다.

또 비 갠 뒤에 산 능선에 서늘하게 오
른 달을 만나게도 됩니다.

오늘이 해제라 하지만 산문밖에 나야
가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한 찰나도
놓치지 말고 곧 바로 자기를 들여다 보
아합니다.

알림 조계종 고불총림(백양사)과 조계총림(송광사)의 방장스님 해제
법어는 2월14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아 실지 않습니다.

尋牛 圓覺禪院 봉불점안 및 개원대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동근 깨달음을 찾아서 미래불교의 자등과 법등을 밝히는
「열린 시민선방」인 圓覺禪院이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포교도량의 새 장(場)을 열게 될 원각선원 봉불점안 및
개원대법회에는 쌍계사 조실이신 고산큰스님의 사자후가

법석을 가득 채우게 되며

아울러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선서화 초대전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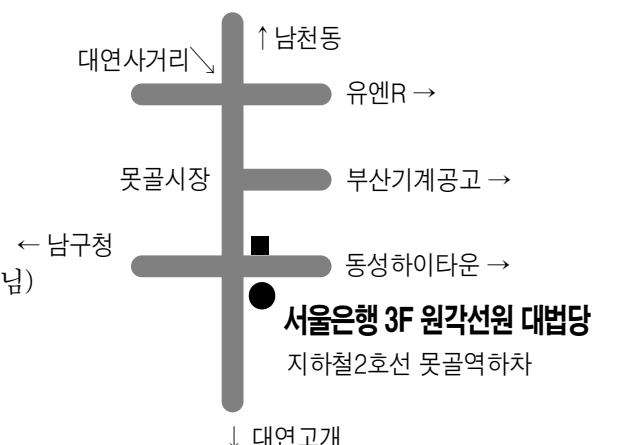
지친 현대인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린 도량으로서
문을 열게 될 원각선원에 인연있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47년 2월 선원장 성 각 합장

식 순

- 1부 : 봉불 점안 법회
- 2부 : 개원법회
- 개 식
- 삼귀의
- 찬불가
- 반야심경
- 내빈소개
- 원장인사 (망운암주지 성각스님)
- 격려사
- 축 사
- 칭법가
- 법 어 (고산큰스님)
- 축 가
- 발원문
- 사홍서원
- 산회가

개원일시 :
2003년 2월 27일 (음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남구 대연 2동 1764-1번지
서호빌딩(서울은행) 3층 원각선원
전화: (051)638-0116~8